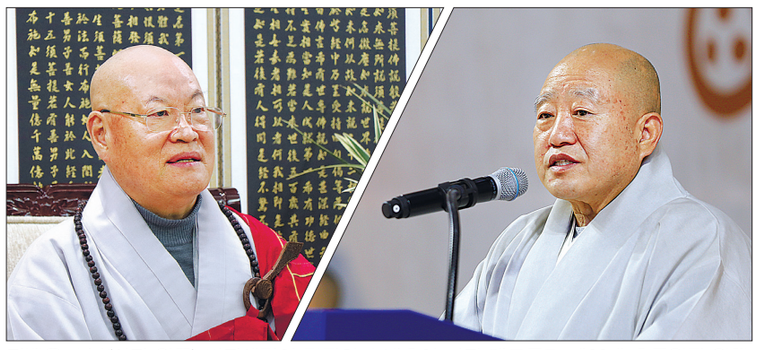
냉온탕 오간 전통종단 '화합 염원'

2018 종단 결산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8년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전통종단들이 안정과 갈등이라는 '냉온탕'을 오간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각 종단 수장들의 지도력과 도덕성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계종은 갈등에서 안정으로, 태고종은 안정에서 갈등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편백운 스님(사진 왼쪽) 비판세력이 결집하며 내홍이 커진 태고종과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사진 오른쪽) 취임 이후 안정세에 접어든 조계종. 전통종단인 두 종단은 '갈등'과 '안정'의 가치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조계종 수장 의혹으로 몸살
신임 총무원장 선출돼 안정
부채 해결해 화합한 태고종
反집행부 결집하며 내홍 커

수장 교체로 쇄신 '조계종'

2018년은 조계종 현대사에 있어서 유례없는 해였다. 지난해 당선된 제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게 제기된 친자의 혹이 올해 봄 공중파의 전파를 타면서 여론이 급격하게 등을 돌렸다. 조계종은 교권자주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의혹을 조사했지만 친자의혹만큼은 밝히지 못했다. 설정 스님은 유전자 검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정작 딸로 지목된 여성의 행방이 캐나다에서 끊겨 찾을 수 없었다.

그나마 딸로 지목된 여성의 친모가 공중파 방송 이후 미국에서 조계종에 연락을 취해 "설정 스님의 자식이 아니다"고 밝혔으나, 하와이 무량사 주지 도현 스님이 과거 친모와의 대화를 담은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진흙탕 진실공방이 번졌다.

종단 내 갈등이 점차 거세지자 교구본사주지들을 비롯해 중앙종회까지 설정 스님의 용퇴를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설정 스님은 용퇴 입장을 밝혔다가 번복하면서 내홍이 더욱 깊어졌고, 결국 설정 스님은 조계종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종회 불신임 결의를 받았다. 총무원장 취임 10개월 만이었다.

조계종은 이후 직무대행체제에 접어들어 총무원장 선거에 돌입했다. 지난 9월 치러진 선거에서 '소통과 화합'을 천명한 원행 스님이 제36대 총무원장에 당선, 조계종은 빠르게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원행 스님은 △교구중심제 △비구니 위상강화 △승려복지 확대 등을 공약으로 발표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파국 예상되는 '태고종'

태고종은 지난해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취임 후 올해 초까지 안정적인 종단 운영이 이뤄졌다. 무엇보다 과거 종단 분규사태 원인이었던 부채 약 50억 원을 해결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종단 안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종무원을 중심으로 집행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편백운 스님 역시 이에 대응해 종법절차와 무관하게 대전종무원장을 직권면직하고, 전북교구 관할 사찰을 중앙으로 옮기면서 반대파와 대립했다.

종단 내홍이 극에 달하면서 이달에는 급기야 '길바닥 종회'까지 열렸다. 집행부가 총무원 사용을 불허하면서 총무원 사 앞에서 노상 종회가 개회한 것. 이 자리서 종회는 규정부 소환을 막고자 회기를 내년 3월 15일까지 100일간 이어갈 것을 결의하고, 집행부 특별감사 결과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반면 편백운 스님은 "종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태고종 내홍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불교 외면한 정부 문화정책

종단 외적으로는 정부의 일방적인 자연공원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추진 등이 도마에 올랐다. 불교계는 법 개정으로 인한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교계와 소통하지 않은 관련 부처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와 함께 불교계는 문화재관람료 징수문제와 고속도로 표지판서 사찰명을 철거하는 일 등 현안을 해소하는 데 미온적인 정부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다행히 법안 개정은 현재 조계종을 중심으로 정부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이에 국립공원 토지의 7%가량을 제공하는 조계종은 각종 포럼과 강연을 통해 현재 정부의 공원정책 문제점을 짚고,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계종 법규위원회 3년 2개월 만 개최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몽산)는 12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87차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비구니 선출 관련 전국비구니회 회칙 등에 대한 위법심판 청구의 건 △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10인의 지위 부존재 심판 청구의 건 △재심호계원 서황룡(서의현) 前총무원장 공권정지 3년 확정 판결 종헌·종법 위반 심판 청구의 건 등을 다뤘다.

하지만 법규위원회 회의가 2015년 10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성원됨에 따라 임기가 끝난 제16대 중앙종회 비구니 관련 청구의 건은 각하됐다. 청구인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규위는 이어 선광 스님 외 9인이 제기한 서의현 전 前총무원장 재심호계원 확정 판결 종헌·종법 위반 심판 청구의 건에 대한 청구적격심사를 차기 회의서 다루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해프닝으로 끝난 종단협 회장 경선

태고종·대각종, 회장 출마 의사 철회… 조계종 추대

50여 년간 사실상 조계종이 당연직처럼 회장을 맡아온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직에 태고종과 대각종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최초의 경선이 예상됐으나, 두 종단 모두 갑작스레 출마를 철회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2월 18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제5차 정기회를 열고, 공석인 종단협 회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사회에 앞서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과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이 '균등한 기회 부여'를 이유로 사무처에 회장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하면서 종단협 내부에서는 한 차례 논란이 인 바 있다.

하지만 이사회를 앞두고 태고종은 12월 14일자로, 대각종은 이사회 당일 아침 출마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사무처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종단협은 관례대로 조계종을 회장 종단으로 추대했다. 태고종과 대각종은 구체적인 출마 철회 배경을 밝히지 않았으나 협회 내 부정적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원행 스님은 회장 추대 직후 "잠시(회장직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으나 결단을 내려주신 두 종단 스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회장으로서 현안을 풀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종단협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9억4980만원, 특별회계 예산을 2억7800만원으로 확정했다.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를 비롯해 한국불교지도자 해외 성지순례, 동지나눔 문화축제 등 연례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와 학술세미나를 종단협 차원서 개최하기로 했다.

종단협은 또 1년 넘도록 회비와 사업분담금을 체납한 법화종과 미타종에 대해 내년 2월 정기총회까지 징계를 유예하되, 이때까지 회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관에 따라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하도록 결의했다.

한편 종단협은 산하단체인 불교인권위원회가 지난달 이석기 前통합진보당 의원을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산하단체 제명의 건을 다뤘다. 이 자리서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은 참회의 뜻을 밝혔으며, 종단협은 향후 산하단체 단독이 아닌 협회 협의 후 사업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종단협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 '분리과세대상 토지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윤호섭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불교는 '自淨其意'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이 칠불통계게(七佛通戒偈)는 과거 일곱부처님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불교입니다.

악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두루 행하라고 권고하는 이 게송은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하고 선업을 지어 이고득락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괴로움의 원인과 소멸에 대해 최초의 설법을 하신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기 전 4성제에 대해 의심이 남아있으면 속히 물어보라고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비구들이 침묵하자 부처님은 최후의 유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멸하니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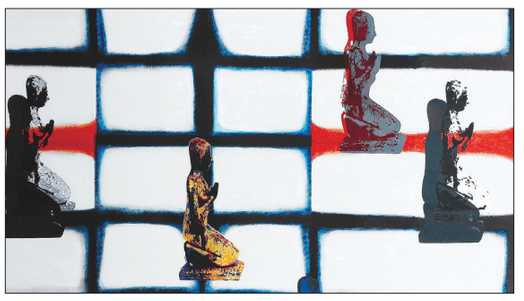
이 말씀은 방일하지 말고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나라는 일깨움입니다. 그 구체적인 수행은 계정혜 3학을 닦아 10선업을 짓고 8정도 6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 '악한 일 하지말고 착한 일 하라'는 말은 중국의 조과 도림(741~824) 선사가 백거이(772~846)에게 말했듯이 3살 어린이도 알지만 80노인도 행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탐진치 3독에 젖어 10악업을 익혀왔기 때문입니다.

10악업의 근본은 뜻으로 짓는 '탐욕·성냄·어리석음'의 3가지 의업입니다. 의업으로 인해 몸으로 '살생·도둑질·사음'의 3가지 신업을 짓고, 입으로 '망어·양설·악구·기어'의 4가지 구업을 지어 괴로운 과보를 받게 됩니다.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려면 마음에서 행동과 말이 나오므로 먼저 의업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탐욕은 계로, 성냄은 선정으로, 어리석음은 지혜로 닦습니다.

계정혜 3학의 선으로 탐진치 3악을 없애 '자정기의'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맑고 밝은 양심이 되면 자비로 몸을 항복받아 살생이 생명사랑으로, 도둑질이 보시로, 사음이 청정범행으로 바뀝니다. 진실한 말로 입으로 짓는 4가지 구업을 다스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림·조향숙

"계정혜로 탐진치 다스려
제악막작 중선봉행 하라"
불방일 정진 '나와 이웃 행복'

이처럼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는 것이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입니다.

선법을 닦는 이 수행은 나와 이웃을 화목하게 합니다. 4무량심을 기반으로 한 보시와 지계는 가장 적극적인 선행입니다. 4섭법도 세상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이타행입니다.

이렇게 볼 때 칠불통계게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선법을 닦아 이웃과 함께 이고득락의 정토로 가는 깨달음의 윤리입니다.

* 인생에는 밝음과 어둠의 길이 있습니다.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는 밝음으로 가는길입니다.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힘든 깊고 미묘한 법문을 만났으니 다생겁래로 지은 모든 업장을 지극한 참회로 일념돈탕제합시다. 칠불통계게를 받들어 수지하여 여래의 진실한 뜻을 알 수 있도록 불방일 정진합시다.

함께 인연한 독자 여러분! '날이 날마다 좋은날' 이길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삼천사 회주·동국대 석좌교수〉

